

50) ③

(가)는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희망을 품고 사는 삶을, (나)는 힘든 삶이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삶을, (다)는 가을철의 익어가는 사물들을 보며, 무엇인가를 거두는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모두 자연(물)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②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현실의 모순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⑤ 세 작품 모두 심리적으로 자연물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51) ⑤

(가)는 '햇살을 향하여,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항시 날아오는 노고지리같이'와 같은 상승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삶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① '~처럼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넋을 살게 하자'(1연)가 4연에도 반복되고 있다. ② (나)는 눈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순수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겨울나무와 바람(투명한 빨래)는 고독과 방향의 사물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부분도 있다.) ③ 그러나 (다)가 시간을 거꾸로 배치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 여름인 듯 생각하지만, 계절은 이미 가을(현재)로 도달해 있음을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피하기 : ④ (다)는 '바람이 ~ 말끔히 씻어갈 때,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여치 노래 소리'와 같이 활유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을 생동감있게 표현했다.

52) ②

'달게 받으라'의 의미는 괴로운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 즉 시련의 감내(堪耐)를 의미한다. 따라서 ②의 '말없이 삭이고'와 의미면에서 유사하다.

오답피하기 : ① 외톨이로 서보는 날은 고독과 외로움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③ 떨어인다는 것은 눈이 떨어지는 모습, 혹은 떨어지는 눈물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④ 여름 태양에 의해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⑤ 울음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 모습을 형용하고 있다.

53) ③

(가)에서 원광(둥근 빛, 광명)이 마음에 떠오른다고 했는데, 이는 화자가 지향하는 마음의 세계를 집약해서 보여준다. (다)에서 '무엇'인가 거두어들이었다고 했는데, 이 또한 화자가 지향하는 결실의 때[시(時)]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54) ①

(가)의 [A]연은 괴롭고 힘들지만 이를 감내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의 광명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제는 겨울이 와도 춥다고 하지 않고, 어려워도 따스한 봄날과 무성한 숲의 힘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A]와 가장 유사하다.

오답피하기 : ②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하겠다는 태도이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감내하면서 이겨내고 마음의 광명을 찾겠다는 태도는 아님에 유의한다. ④ 삶은 원리 피해갈 수 없는 가시밭길, 허망해도 삶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⑤ 멀리만 내다보지 않고 발을 디디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겠다는 내용이다.

55) ④

이 글은 지식인의 눈에 비친 1930년대 경성의 풍경과 그 속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작가 자신이 자신의 창작 기법에 '고현학'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처럼, 경성 시내의 풍경과 사람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그 속에서 삶의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들이 인간의 삶을 억압한다는 것이나, 작고 소박한 것이 아름답다는 것, 현실의 비극을 초월하여 살아가고 싶다는 것, 사람들의 심층 심리를 분석한다는 것 등은 이 작품의 초점이 아니다. 작가는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듯이 작품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

56) ④

백화점에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모습이 식민지 사회의 변화 조짐을 보여준다고 볼 근거는 될 수 없다. 백화점에 나들이 나온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소재로 쓰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 구보가 추구하는 행복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이 주는 행복은 아니다. 그래서 구보는 이들의 행복을 업신여기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이 갖지 않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이 주는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미치지,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축복해주려는 것이다.

57) ②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지로 떠난 후, 구보는 자신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보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은 ②이다. ②는 김광균의 <와사등>의 일부로서, 도시 한 복판에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형상화된 것이다.

①은 박팔양의 <밤차>의 일부이다. 이 시는 추방당하는 유랑민의 비애를 거친 호흡과 직설적인 어법으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③은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의 일부이다. 이 시는 젊은이가 암울한 일제 식민지 현실을 눈물로만 보낼 수 없다는 강변(強辯)을 담은 것으로 고향과 정든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서글픈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④는 양주동의 <조선의 맥박>의 일부이다. 이 시는 일제 치하의 암담한 현실에서 민족 부활의 미래를 '튼튼한 젊은이', '어린 학생' 등에서 발견하며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작품이다. ⑤는 윤근강의 <지렁이의 노래>의 일부이다. 이 시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두 동강으로 몸뚱아리가 잘려도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지렁이를 통해서 민족의 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58) ②

'새'는 관형사로서 띄어써야 하므로, '새웃'은 '새 옷'으로 써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접두사이므로 어근에 붙여서 쓰는 것이 맞다.

59) ⑤

<보기>에 제시된 조건은 아낙네의 행동을 인간의 본성과 관련지으라는 것과 오늘날의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것인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⑤이다. ⑤의 첫 번째 문장은 아낙네의 행동을 인간의 본성과 관련지은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세태를 분석한 것이다. ①, ③, ④는 세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다. ②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빠뜨렸다. 아울러 ③과 ⑤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들은 아낙네의 행동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들이다.

60) ⑤

교수와 천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다음에 감독관이 등장하고 있다. 천사와 대립하는 인물은 감독관이 아니라 교수이다. 따라서 천사와 감독관이 대립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철쇄'는 일상생활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교수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 ② 무대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으로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③ 교수, 장녀, 감독관, 천사 등과 같은 보통 명사를 사용하여 익명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장녀 (관객들에게)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 신문을 읽어 드립니다'에서 장녀는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61) ⑤

[A]에서 천사와 교수가 대화를 진행할수록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있을 뿐, 천사는 교수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교수가 천사에게 내 꿈을 도로 찾아 달라고 말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②, ③ 교수가 천사에게 '왜 나를 버렸어요?'라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으며, 꿈과 정열을 잃어버린 책임을 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④ 사고(思考)와 사고(事故)를 연결시켜 언어유희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있다.

62) ④

[B]에서 장녀가 읽어주는 신문 기사는 서로 별개의 사건들이며, 서로 긴밀한 인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과장되게 나열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② '꿈쩍도 해라.'에서 정보 전달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③ 두 살 난 애가 아버지를 죽이고, 지프차가 동대문을 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등의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⑤ 짧은 문장을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대사의 속도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63) ②

희곡의 대사에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①은 단지 자연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교수에게 원고를 쓰라고 강요하는 태도에서 감독관의 위압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피곤한 아버지를 위하는 척하는 태도에서 장녀의 성격을 추리할 수 있다. ④ 아버지를 배려하는 척하는 태도에서 장녀의 성격을 추리할 수 있다. ⑤ 무작정 주어진 신문을 번역하려는 모습에서 교수의 성격을 추리할 수 있다.

64) ③

셋째 문단의 내용에 의하면, 나노 물질의 제조 기술 중 상향식 방법은 원자나 분자의 결합력을 이용한 자기 조립 현상을 이용하여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오답풀이] ①은 첫째 문단을 통해서, ②는 둘째 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 ④는 정보 기술 분야에 대한 나노 기술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넷째 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⑤는 우리나라의 나노 기술 발전 현황에 대해 설명한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65) ②

글 전체의 내용과 ㉠에는, '나노 모터'를 이용하여 만든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면서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노 모터'가 몸 속의 ATP를 연료로 구동된다는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노 모터'가 단백질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④ 나노 크기의 로봇이므로, 분자 수준의 상태까지 조절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66) ⑤

제시문의 내용을 참조할 때, 나노 물질을 제조하는 기술의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나노 소재를 활용한 생활용품으로 우리의 일상 생활이 혁명적으로 변화했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한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시문의 내용이 나노 기술의 응용 가능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고, <보기>의 수집 자료도 나노 기술을 응용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바탕으로 쓰는 기사의 제목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③ <보기> 2의 내용은 기계 산업 분야에서 나노 기술을 응용한 예이다

67) ①

<보기>의 주장에는, 대상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환원주의적 기술의 발전이 결국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점이 담겨 있다. 그런데, 제시문에 소개된 나노 기술은 환원주의적 기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필자 역시 그러한 기술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관점에서는 이처럼 물질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68) ⑤

4문단에서 18세기를 언급한 것은 다이어트가 오늘날과는 다른 이유로 행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날씬한 몸매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여성은 현대의 여성들이다.

오답피하기

①2문단에서 '마릴린 먼로'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②2문단에서 1930년대와 1950년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미지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③2문단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몸의 이미지는 당대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3문단에서 대중 매체는 소비를 조장하며 사람들은 이러한 영상 매체에서 본 이미지를 모방하여 자신을 표현한다고 했다.

69) ③

㉠은 오늘날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영상 매체에서 본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서이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결국 '몸에 대한 강박 관념'만을 강하게 심어줄 뿐이다. 그러므로 네 가지 내용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능동적인 자기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70) ②

㉠에서의 '거울'은 '어떤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에서는 얼굴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하다.

오답피하기

①행동에 모범이 될 만한 귀감의 의미를 지닌다.

③, ④는 '사물을 비추어 주는 기구' 즉, 중심적 의미로서의 '거울'이다.

⑤교훈의 의미를 지닌다.

71) ①

㉠은 몸에 대한 현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에서 '세수'를 언급한 것은 현대인이 바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만약 세수에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라면 ㉡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에서는 오히려 세수할 시간도 없다는 내용이므로 ㉡과 거리가 멀다.

오답피하기

②몸매 가꾸는 방송을 보며 압박감을 느낀다고 했으므로 몸을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다.

③옷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④화장이 지닌 예전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화장은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긴 했으나 개인적 차원이냐, 집단적 차원이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⑤랩을 좋아하기에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72) ⑤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위 글의 관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이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살이 찐 상태가 아니다. 매력적인 몸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으로 인한 반응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보기에서의 '나'는 남들에게 매력적이고 날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연예인처럼 되기 위해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고, 그 결과 체중이 줄어드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의 반응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시선이 아닌 타인의 만들어진 시선에 기준을 맞춘 것으로 지적했기에 본문에서의 문제의식과 같다고 할 수 있다.